

관련 금액 20 억원!

# 전국 주유기 부정행위 사건 1,249 건 조사처리

5월 16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주유기(加油机) 부정행위 종합단속 관련 기자회견을 소집하고 지난 1년간의 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회의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국적으로 주유기 부정행위 총 1,249 건을 조사처리했는데 관련 금액이 20억 200만 원에 달하며 6억 9,7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렸다. 이외, 세금을 조사하고 체납액을 징수하며 벌금 19억 6,100만 원을 내렸다. 84건의 형사사건을 립건하고 범죄용의자 200명을 형사구류시켰으며 정제유(成品油) 판매시장의 질서를 효과적으로 규범화했다. 동시에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여러 전형적인 사례를 폭로했다.

정제유는 인민의 경제생활과 관련되는 중요한 상품으로 국민경제의 운행과 사회 생산,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2023년 8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공안부, 상무부, 세무총국 등 부처와 연합하여 전국적으로 주유기 부정행위 종합단속행동을 전개했다. 공안부 인터넷안전정보위국 부국장 석축은 "주유기 부정행위는 인터넷 범죄활동의 전형적인 특징을 띠고 있는 바 인터넷 회색산업(黑灰产业)은 주유기산업의 구체적인 체현이다. 주유기는 자동화 통제 설비의 일종으로 법률상에서 컴퓨터 정보시스템에 속

한다. 도구, 방법의 제공이나 주유기의 불법 개조 등 행위는 모두 컴퓨터 정보시스템을 불법적으로 통제하거나 파괴하는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말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기준기술사 1급 순시원 국환신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기동차 연료 주유기> 국가표준 GB/T9081-2023은 2023년 11월 27일에 수정, 발표되고 올해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부정행위 방지 면에서 신규 국가표준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단일 디지털 서명'(软硬件唯一数字签名), '핵심부품 전체 수명 주기 확인'(核心部件全生命周期校验),

'국가기밀 칩 저장'(国密芯片存储) 등 기술을 통해 주유기의 전체 수명 주기에 대한 주요 책임을 정의하고 최대한 범죄자들이 주유기를 개조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한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집행검사국 국장 황욱은 "현재 전문행동은 범죄의 근원을 제거하고 범죄 사슬을 차단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새로운 기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깊이 추진되고 있는바 범죄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양리자호텔레비존방송총국

뢰봉반 로인들

## 불우학생들에게 명절의 따스함 전해

'6.1'국제아동절에 즈음하여 연길 로인리봉반에서는 '사랑의 손길 보내기' 활동을 조직했다. 한 팀은 연길시실험중학교를 찾아가 외할머니의 보살핌으로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학생에게 사랑의 성금 1,000 원을 전달했다. 아이의 담임교원은 "이 학생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급에서 활약적이며 착한 학생입니다." 라고 소개했다. 5명의 공산당원들로 구성된 다른 한 팀은 연길시 건공가두 연춘사회구역역을 찾아 어렵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 두명의 한족 '엄마'에게 각각 500 원씩 건네주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의 마음만은 상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명절을 맞아 아이들의 작은 소원이나

마 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두명의 한족 '엄마'는 조선족 로인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에 연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품성도 좋고 공부도 잘하며 건실한 인재로 자라도록 뒤바라지를 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연춘사회구역당위 서기인 허의결은 "민족단결의 따뜻한 정이 사회구역에서 석류마냥 붉고 단단히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후대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어 례봉반의 례봉정신 실천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전했다. 료해에 따르면 허의결도 다년간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조선족 학생들을 책임지고 보살피고 있다. / 박철원특약기자

연길 경찰에 엄지척!

## 밤도와 휴대폰 찾아주어 고맙습니다

"휴대폰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도 안했는데 새벽 4시까지 6시간 동안 저희를 도와 휴대폰을 찾아주어 참으로 고맙다. 연길은 정말 좋은 곳이다. 산도 좋고 물도 좋는데 사람은 더 좋다!" 5월 6일, 연길시공안국 진학파출소 경찰 장운승이 하남성의 한 대학생 리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추분향, 왕호연과 함께 밤새 휴대폰을 찾아준 데 대해 리씨 학생이 이 같은 감사의 말을 전했다. 료해에 따르면 대학생 리씨와 그의 여자친구는 5월 4일 저녁 연변대학에서 택시를 타고 연길시병원 근처의 민박에 도착했는데 내릴 때 실수로 휴대폰을 택시에 두었다. 두 사람은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즉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고 그래서야 휴대폰을 무음모드로 설정한 것이 생각났다. 22시 30분경, 두 사람은 진학파출소의 경찰에 신고했다. 방직을 서고 있던 경찰 장운승은 즉시 추분향, 왕호연과 함께 리씨와 그의 여자친구를 이끌고 위치 궤적에 따라 휴대폰을 찾기 시작했다. 장운승은 "애플폰을 잃어버린 것이

여서 아이폰에 휴대전화 위치 정보가 있었지만 한시간이 지나도록 찾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때는 자정에 가까웠고 두 사람은 다음 날 오전 9시에 고속철을 타고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먼저 두 사람을 숙소로 돌려보내 휴식을 취하게 했"고 전했다. 장운승 등 3명은 5월 오전 4시 경에야 겨우 두 사람이 탄 택시운전사를 찾았고 따라서 전원이 끊어진 휴대폰도 찾았다. 장운승은 바로 리씨에게 연락해 휴대폰을 돌려주었다. 리씨는 장운승의 전화를 받고 매우 큰 감동을 받았다. "그렇게 오래동안 찾지도 못 찾아 우리는 그냥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밤을 새면서 우리를 도와 휴대폰을 찾아준 줄은 정말 몰랐다!"고 말했다. 이번 '5.1절'에 연길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아름다운 경치도 구경하고 동시에 인민경찰들이 주는 안정감과 따뜻함도 느낀 리씨는 학교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 감사의 인사를 표하고 감사의 편지도 보내왔던 것이다. / 실습생 김성보

## '520', 연길시민정국 신혼부부들에 특별한 이벤트

5월 20일, 연길시민정국은 6쌍의 신혼부부들에게 이벤트와 함께 축하를 표했다. 새로 등기한 6쌍의 신혼부부들은 연길시민정국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축하해주고 꽃과 기념품 등을 선물한 데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연길시민정국 부국장 조용은 문명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훌륭한 아들과 사위, 훌륭한 딸과 며느리로 거듭날 것을 바라면서 사회에 아름다운 혼인 기풍을 형성할 것을 신혼부부들에게 호소했다. / 리성복특약기자



【전형사례 분석】

## 칼을 든 자택 불법 침입자를 살해... 정당방위 판정

16일, 《법치일보》는 정당방위 관련 전형사례를 보도했다. 길림성 화전시의 A모와 안해 B모는 감정불화로 리혼했다. 하지만 리혼 랑정기에 A모가 칼을 들고 B모의 집에 침입했다가 B모의 오빠 C모의 칼에 찔려 사망했다. 이 사건에서 B모, C모는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가? 아니면 정당방위였는가? 사건이 발생 후 화전 공안은 검찰기관 및 인민법원을 요청해 사건에 대해 연구,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B모 등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A모와 안해 B모는 80년생 동갑으로 화전시에 거주하는 농민이다. 결혼해 아들을 낳은 후 A모는 외지에서 일하고 B모는 집에서 아들의 공부 뒤바라지를 해왔다. 두 사람의 관계는 좋곤 좋지 않았고 생활상의 사소한 일로 자주 말다툼을 벌였다. 이로 인해 B모는 종종 친정으로 돌아갔고 시간이 흐르면서 A모는 B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게 되며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커져만 갔다. 2023년 8월, B모는 A모에게 리혼을 제기하고 민정부문을 찾아 리혼 수속을 마쳤다. B모는 아이를 친할 아버지 집에 남겨두고 친정으로 돌아갔다. 리혼 랑정기에 A모는 B모의 친정을 찾아 리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한번 B모와 다툼이 벌어졌다. "네가 바람을 피웠으니 나에게 해명하라." A모는 B모가 바람을 피웠다고 비난했지만 B모는 부인했다. "네가 핸드폰을 보여줄 수 있어?" A모가 말했다. "볼 테면 봐! 뭐 대단한 게 있다고!" B모도 지려 하지 않았다. 결국 A모는 핸드폰 메신저에서 B

모가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미심쩍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됐다... "너에게 세가지 선택의 기회를 주겠다. 위자료 50만 원을 내든지 아니면 농약을 마시고 자결하든지 또 아니면 처가식구를 싸다 죽여버리겠다..." A모는 그 자리에서 고래고래 함성을 질렀다. 긴박한 사태에 직면하여 B모의 오빠 C모가 거둬 설득하여 화해시키고 A모에게 50만 원의 '배상금'을 주기로 약속했다. 처가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터라 그날 밤 B모 가족은 A모에게 전화를 걸어 "조금만 먼저 주고 나머지는 할부로 하면 안될까?"고 물었다. "안된다! 돈을 안 주면 B모가 자살하든지 아니면 내가 너희 가족을 전부 죽일 것이다." A모는 리성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다. 전화를 끊은 후 B모는 A모가 정말 바보같은 짓을 하지 않을까 걱정되어 수시로 핸드폰으로 자택의 CCTV를 확인했다. 그 결과 A모가 직접 만든 칼을 차 트렁크에 넣고 주머니에도 작은 칼 한자루를 넣은 채 차를 몰고 집을 나서는 것을 보았다. 영상 보고 B모는 놀라서 인차 모친과 오빠 C모에게 이 상황을 알렸다. C모는 A모가 정말 흥기를 가지고 와서 가족을 해칠까 염려되어 모친과 B모에게 식칼을 한자루씩 건네주고 자신도 칼을 문 뒤에 숨겨놓았다. 사건 당일 23시경 무작정 B모의 친정집에 침입한 A모는 다짜고짜 칼을 들어 C모의 머리를 내리쳤다. 급하게 피해보려고 시도했지만 칼은 C모의 어깨에 맞았다. B모와 B모의 모친은 이 상황을 보고 A모와 영적불었고 다투던 C모는 문 뒤에 숨겨놓았던 칼을 꺼내들고 A모의 복부를 향해 몇번 찔렀다. A모가 담장 모퉁이

에 기대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발견한 세 사람은 놀란 나머지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기관, 공안기관의 불립건 결정 유지. 공안기관은 곧 B모, C모와 그들의 모친에 대해 형사강제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립건 수사를 통해 B모 가족의 행위가 고의적인 살인인지, 정당방위인지, 과잉방위인지를 충분히 연구, 판단하고 수사감독 및 협력 배합 원칙에 따라 검찰기관에 사전 개입 요청을 했다. 검찰관은 사전 당일 CCTV 영상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분석하고 사건의 전말을 판독하면서 공안기관 및 법원의 관련 일군들과 수차례 소통했고 결국 B모 등 3명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속하며 A모의 죽음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안기관은 즉시 B모, B모의 모친, C모에 대한 강제조치를 해제했다. 공안기관에서 사건을 철회하자 A모 가족은 처리 결과에 불만을 토로했고 C모가 과실치사죄를 구성한다면서 화전시인민검찰원에 수사활동 감독을 신청하고 법에 따라 C모에 대해 립건할 것을 공안기관에 요청했다. "우리 검찰기관은 사건을 접수하고 나서 관련 문건을 모두 수거하여 확인하고 동시에 증거자료와 관건성 증거인 현장 CCTV를 검토했다. 검찰위원회의 토론, 연구 결정에 따라 C모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속하기에 공안기관에서 이 사건을 철회한 것은 정확한 결정이다." 라고 관련 검찰관이 말했다. 검찰기관의 세심한 설명과 해석으로 A모의 가족은 결국 검찰기관의 의

견을 인정했다. 우리 나라 형법에 규정된 특수방위제도는 일반방위에 비해 방위행위와 불법침해행위의 완전한 대등성을 요구하지 않고 폭력침해가 현재 진행중인지를 판단하며 반드시 방위 시 방위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립각하고 사건의 전반적인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비슷한 상황에서 일반인의 가능한 반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법에 따라 방위 조건을 정밀하게 파악하며 법률, 도리, 감정(法理情)이 통일되는 인정으로 '법은 불법에 양보해서는 안된다'는 법치정신을 체현한다. 이 사건에서 불법침해자인 A모는 직접 만든 칼을 들고 B모의 자택에 침입한 후 언어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문 뒤에 쪼크리고 앉아있는 C모의 머리를 향해 칼을 날렸고 C모는 몸을 숙이면서 왼쪽 어깨에 상처를 입었다. 그들 세 사람이 A모와 영적불어 싸우는 과정에 C모는 미리 준비해둔 칼을 집어 A모를 찔러 A모의 사망을 초래했다. 당시 상황에서 세 사람이 칼을 휘두르면서 자택으로 침입한 A모와 랑정하게 협상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이다. 비록 A모가 사망하였지만 C모의 행위는 특수방위의 원인 및 조건에 부합되는바 불법침해자의 사망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실제로 혼인가정, 이웃분쟁 등 민간 모순의 격화로 폭력충돌이 발생하고 이로부터 중대 사상을 초래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 우리는 혼인가정, 이웃분쟁 등 문제에 대해 리성적으로 대하고 민간 모순을 정확하게 처리하여 비극의 재발생을 피면해야 한다. / 법치일보 위챗 공식계정 호북일보 위챗 공식계정

변경파출소 경찰들

## 인삼재배농가에 도움의 손길



장백산 아래 고한산구에 위치한 장백조선족자치현 마록구진 이도강 일대는 5월 초순이면 인삼 심기가 가장 적합하다. 이에 장백현 통강변경파출소에서는 5.1절 황금런휴 기간과 토요일, 일요일 등 휴식일도 마다하고 경찰들을 동원하여 10 여인간이나 깊은 산속에 들어가 인삼농들을 위해 봉사해 사회의 절찬을 받고 있다. 이 기간 통강변경파출소의 경찰들은 밤에는 당직을 서고 낮에는 선후촌 이도강촌과 통강촌, 하이도강촌 등 여러 농촌마을에 침입하여 일손이 딸리는 부분적 인

삼농들을 도와 인삼씨를 뿌리거나 인삼을 옮겨 심기도 했다. 그 덕에 이곳의 인삼농들은 제때에 인삼을 심을 수 있어 큰 시름을 덜게 되었다. 경찰들은 또 농민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에게 농사철에 농약, 종자, 화확비료 등 농용 물자를 구입할 때 반드시 인삼농들에서 구입하고 절대로 가짜, 저질 상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리고 불법 생산에서 어려움에 봉착했을 경우 제때에 경찰에 알려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 진화화(秦晓华), 최창남